

# 대전시 노인의 거주환경에 대한 요구

## Needs on the living environments in Daejeon City

이지숙\* / Rhee, Jisook

### Abstract

The increasing elderly population and elderly household are very serious problem in our time. They are weaker physically and mentally than they were in the past. There is hardly a house with floor and facility design for them.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need of the elderly for the living condition in Daejeon city. Their needs of interior are investigated by questionnaire for elderly over 65 years old.

Remarkably, they are not unsatisfied the present condition in spite that it is not agreeable in fact. The informations, for example the equipments and remodeling, to make their life more conveniently are not noticed to them fully. And they point up the emergency bell, the handiness of controlling windows, getting rid of the difference of thresholds, non-slip materials, grab bars around the a chamber pot and the expediency of controlling a tap as important things to select a house. First of all the sensitive considerations to make their living comfortable by designers are needed absolutely and the publicity work to notice the beneficial inform for them is needed.

키워드 : 노인인구, 노인가구, 거주환경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인간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주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급증하고 있는 노인인구이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인구의 증가는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단기간에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대안마련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가족구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노인들의 경제력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은 그들만의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노인부부가구와 1인 노인가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노인가구의 비율은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가선호에 대한 강한 의식과 경제력 때문에 자가 거주율이 일반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주거시설수준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2000 인구주택총조사 최종집계결과 2002.7. 통계청)

한편, 노인인구 비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지역별 노인인구 및 가구의 분포와 그들의 특성에 대한 분석과 그에 적합g나 주거대안 모색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전지역 노인인구와 가구의 현황을 조사하고 노인들의 주택문제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여 향후 주택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전시 노인들의 거주환경에 관한 연구내용 중 그 일부이다.

###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하여 현 거주환경에 대한 인식과 향후 새로운 거주환경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였다. 거동이 가능하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2002년 9월 15일부터 9월 22일 까지 8일간 실시하였고, 아파트 노인정과 복지회관에 온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대전시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거동이 가능하고, 노인정이나 복지회관에 나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경제력(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으므로) 측면에서 일정수준 이상이라 생각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조사결과를 대전시 노인전체에게 일반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 정회원, 혜천대학 실내건축디자인과 조교수

## 2. 노인인구 및 가구 분포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7.2%(2000년)에서 15.1%(2020년)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증가율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2000년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7.2%인 339만 5천명인데, 2020년 전체인구의 15.1%인 766만 7천명, 2030년 노인인구는 총인구의 23.1%인 1,160만 4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적으로 가구의 증가율도 높아가고 있다. 65세 이상 가구의 증가율이 12.1%(2000년)에서 21.0%(2020년)로 늘어나고 65세 이상 남자 가구주는 7.6%(2000년)에서 13.4%(2020년)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65세 이상 여자 가구주는 4.5%(2000년)에서, 7.6%(2020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노인인구 및 연령 계층별 가구 : 2000-2020

단위 : 천명 (%), 천가구 (%)

인구	2000년	2010년	2020년	
전국	계	47,008(100.0)	49,594(100.0)	50,650(100.0)
	- 65세 미만	43,613(92.8)	44,292(89.3)	42,983(84.9)
	- 65세 이상	3,395(7.2)	5,302(10.7)	7,667(15.1)
	남 자	23,667(50.3)	24,933(50.3)	25,377(50.1)
	- 65세 미만	22,367(94.5)	22,756(91.3)	22,086(87.0)
	- 65세 이상	1,300(5.5)	2,177(8.7)	3,291(13.0)
	여 자	23,341(49.7)	24,662(49.7)	25,273(49.9)
	- 65세 미만	21,246(91.0)	21,537(87.3)	20,897(82.7)
	- 65세 이상	2,095(9.0)	3,125(12.7)	4,377(17.3)
	가구주 연령	2000년	2010년	2020년
계		14,609(100.0)	16,864(100.0)	18,158(100.0)
- 65세 미만		12,838(87.9)	14,100(83.6)	14,350(79.0)
- 65세 이상		1,771(12.1)	2,764(16.4)	3,808(21.0)
남 자		11,901(81.5)	13,408(79.5)	14,179(78.1)
- 65세 미만		10,795(92.4)	11,665(89.7)	11,750(86.6)
- 65세 이상		1,106(7.6)	1,743(10.3)	2,429(13.4)
여 자		2,708(18.5)	3,455(20.5)	3,979(21.9)
- 65세 미만		2,043(95.5)	2,434(93.9)	2,600(92.4)
- 65세 이상		665(4.5)	1,021(6.1)	1,379(7.6)

주 : "계, 남자, 여자" 란의 구성비는 전체가구, 연령계층란의 구성비는 각각 "계, 남자, 여자"에 대한 구성비임

지역별로 노인인구를 비교해보면,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53만 9천명, 경기 52만 3천명(2000년)인데, 서울 201만 6천명, 경기 284만 7천명(2030년)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대전광역시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5.4%인 7만 5천명(2000년)이던 것이 전체인구의 20.2%인 37만 1천명(2030년)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시도별 인구지수를 비교해보면, 2000년 시도별 인구를 100으로 볼 때, 2020년 인구지수가 100을 초과할 지역은 대전 125.8, 경기 139.2 등 10개 시도로 전망되고,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은 부산(90.9), 전남(85.7) 등이다. 또 시도별 노령인구(65세 이상)를 100으로 볼 때, 2020년 노령인구지수는

모든 지역에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2020년 인구지수가 2배 이상 높아질 지역은 울산(365.8), 경기(298.9), 대전(293.4) 등 9개 시도로 노령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 많이 높아질 전망이다.(시도별 장래인구추계결과 2002.5. 통계청. p.6)

<표 2> 시도별 노령인구수 및 구성비 추이

단위: 천명, %

		2000	2010	2020	2030
전국	계	47,008	49,594	50,650	50,296
	65+	3,395	5,302	7,667	11,604
		7.2	10.7	15.1	23.1
서울	계	10,078	9,869	9,508	22,39,026
	65+	539	917	1,437	2,016
		5.3	9.3	15.1	22.3
부산	계	3,733	3,573	3,382	3,190
	65+	227	389	612	849
		6.1	10.9	18.1	26.6
대구	계	2,529	2,577	2,557	2,477
	65+	148	248	383	575
		5.9	9.6	15.0	23.2
인천	계	2,522	2,789	2,962	3,023
	65+	138	234	383	687
		5.5	8.4	12.9	22.7
광주	계	1,382	1,522	1,605	1,637
	65+	76	129	202	316
		5.5	8.5	12.6	19.3
대전	계	1,397	1,605	1,758	1,840
	65+	75	131	221	371
		5.4	8.2	12.6	20.2
울산	계	1,036	1,124	1,188	1,215
	65+	41	77	150	278
		4.0	6.9	12.7	22.9
경기	계	9,146	11,295	12,729	13,497
	65+	523	954	1,563	2,847
		5.7	8.4	12.3	21.1
강원	계	1,516	1,522	1,490	1,427
	65+	148	223	277	383
		9.8	14.6	18.6	26.8
충북	계	1,494	1,562	1,584	1,563
	65+	143	204	258	371
		9.6	13.0	16.3	23.7
충남	계	1,879	1,944	1,939	1,883
	65+	224	299	352	467
		11.9	15.4	18.1	24.8
전북	계	1,927	1,875	1,800	1,707
	65+	213	281	338	434
		11.1	15.0	18.8	25.4
전남	계	2,035	1,895	1,744	1,594
	65+	273	350	381	451
		13.4	18.5	21.8	28.3
경북	계	2,773	2,753	2,677	2,554
	65+	316	423	514	674
		11.4	15.4	19.2	26.4
경남	계	3,036	3,137	3,154	3,102
	65+	269	379	511	760
		8.9	12.1	16.2	24.5
제주	계	524	552	563	561
	65+	43	65	87	126
		8.2	11.8	15.4	22.5

출처: 2000인구주택 조사 최종집계결과(여성·아동,고령자,1인가구부문), 2002.7.p.19

### 3. 조사결과

#### 3.1. 노인인구의 사회인구학적 현황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65-74세 이하 37.9%, 75세 이상 61.9%로 고령자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표집되었다. 학력분포는 초등학교 졸업자 43.9%이고 중학교 이상 졸업자 26.6%, 무학 26.3%였다. 성별 분포는 남자 53.4%, 여자 46.6%였고, 조사 대상자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69.0%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보다 더 많았다. 월평균 생활비는 대부분 50만원 미만(94.8%) 이었다. 건강상태는 나쁘다는 쪽이 50.0%, 보통이다 36.2%, 좋다는 쪽이 13.8%로 나타났다.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의 종류로 신경통, 관절염(51.2%), 고혈압, 저혈압(34.5%), 시력약화(20.7%), 당뇨병(19.0%)이 많이 지적되었다. 자립생활의 경우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49.1%로 나타났고,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50.9%로 나타났다. 현재 자가운전을 하는 사람은 7.0%에 달했다.

#### 3.2. 거주환경에 대한 요구사항

##### (1) 현 거주환경에 대한 반응

주거유형은 아파트 49.1%, 단독주택 47.4%였고, 거주기간은 10년 이하가 82.3%로 나타났다(표 4). 거주 층수는 10층 이하가 81.0%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위험한 곳으로 지적한 곳은 계단 8.8%로 건물의 물리적인 부분에서 계단을 가장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불편하다고 느끼는 곳은 화장실이 14.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엌의 썩크대 부분 5.4%였다. 자녀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62.1%로 높았고, 자가거주는 27.6%로 나타났다. 자녀소유 주택의 경우 40평대, 자가주택의 경우 20평대가 많았다. 노인들이 낮에 주로 하는 활동으로 대화 29사례, 화투, 바둑, 장기 11사례로 많았다. 낮에 희망하는 활동이 없다고 반응한 사람은 80%로 낮에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지 않고 대화나 화투, 바둑, 장기와 같이 정적인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조사대상자들이 주택에 대하여 위험하거나 불편하다고 반응한 곳에 대한 사항(표 5)입니다. 위험하다고 반응한 곳은 계단, 문턱, 바닥의 미끄러움이었고, 대부분 위험한 곳은 없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주택 안에서 일어나는 노인들의 안전 사고율이 매우 높은 것에 비추어볼 때, 본 조사 대상자들은 이미 거주기간이 길어서 많은 부분에 대하여 적응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바람직한 거주환경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불편하다고 인지한 것은 화장실이 가장 많았고, 부엌의 썩크대, 주택의 규모와 계단, 실내디자인이 불편하다고 반응하였다. 이것도 불편한 곳이 없다고 반응한 비율이 75.0%나 되어서 일반적으로 이들이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그대로 수용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구분	빈도수	백분율
연령	65-69세	5	8.5
	70-74세	17	29.4
	75-79세	24	41.4
	80-84세	10	17.3
	85세 이상	2	3.4
	계	58	100.0
학력	무학	15	26.3
	초등학교	25	43.9
	중학교	9	15.8
	고등학교	5	8.8
	대학중퇴	1	1.7
	대졸 이상	2	3.5
계	57	100.0	
성별	여	27	46.6
	남	31	53.4
	계	58	100.0
배우자	유	18	31.0
	무	40	69.0
	계	58	100.0
월평균 생활비	50만원 미만	55	94.8
	50-100만원 미만	3	5.2
	계	58	100.0
건강상태	나쁘다	9	15.5
	약간 나쁘다	20	34.5
	보통이다	21	36.2
	약간 좋다	3	5.2
	좋다	5	8.6
	계	58	100.0
질병*	신경통, 관절염	30	51.2
	고혈압, 저혈압	20	34.5
	빈혈	1	1.7
	위장병	6	10.3
	당뇨병	11	19.0
	천식, 폐렴	6	10.3
	백내장, 안질환	3	5.2
	시력 약화	12	20.7
	청력 약화	7	12.1
	심장병	1	1.7
	기타	5	8.6
	없음	3	5.2
	계	58	100.0
	자립생활	타인의 도움을 받음	7
타인의 도움을 가끔 받음		21	36.8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음		29	50.9
계		57	100.0
자가 운전	유	53	93.0
	무	4	7.0
	계	57	100.0

\*:중복응답

주택의 물리적 조건에 대하여 위험하거나 불편하다고 반응한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관이나 복도, 계단의 단차가 있다 55.4%, 주거 내에 문턱이 있다 53.8%, 욕조 주변 손잡이나 보조의자가 없다 91.2%, 비상벨이 없다 96.5%, 바닥에 미끄럼방지를 위한 시설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위험하거나 불편하다는 반응보다 현실적으로 더 위험하고 불편할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향후 주거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물리적 조건

으로 비상벨 53.4%, 창문개폐의 편리 50.0%, 문턱제거 36.2%, 난방조절, 욕실바닥의 미끄러움 34.5%, 변기 주변 29.3%, 현관 단차 24.9%, 수전 조작의 용이함 24.1%, 비데, 현관 바닥의 미끄러움, 계단 높이를 지적하였다. 위험하다고 지적한 것, 불편하다고 지적한 것과 중요한 주거시설로 지적한 것과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주택 일반사항 단위 : 빈도수 (%)

	거주기간					
	1년 이하	2-5년 이하	6-10년 이하	11-20년 이하	21년 이상	계
아파트	1(3.6)	10(35.6)	13(46.3)	4(14.4)	-	28(49.1)
다세대 주택	-	1(50.0)	-	-	1(50.0)	2(3.5)
단독주택	2(7.4)	9(33.3)	8(29.6)	5(28.5)	3(11.1)	27(47.4)
계	3(5.4)	20(35.1)	21(36.8)	9(10.7)	4(7.0)	57(100.0)
	주택 규모					
	20평 이하	20평 이상-30평 미만	30평 이상-40평 미만	40평 이상-50평 미만	50평 이상	계
자가	2(12.5)	7(43.8)	1(6.3)	2(12.5)	4(25.0)	13(27.6)
자녀소유	2(5.6)	4(11.1)	12(33.3)	13(36.1)	5(13.9)	36(62.1)
임대	1(50.0)	1(50.0)	-	-	-	2(3.4)
기타	2(50.0)	1(25.0)	-	1(25.0)	-	4(6.9)
계	7(12.1)	13(22.4)	13(22.4)	16(27.6)	9(15.5)	58(100.0)

<표 5> 주택 내에서 위험하거나 불편하다고 인지되는 부분

		빈도수	백분율
위험한 곳	계단	5	8.8
	문턱	1	1.8
	바닥	1	1.8
	없음	50	87.6
	계	57	100.0
불편한 곳	화장실	8	14.3
	규모	1	1.8
	계단	1	1.8
	부엌(싱크대)	3	5.4
	디자인(실내형태)	1	1.8
	없음	42	75.0
	계	56	100.0

<표 6> 안전과 관련된 시설현황 단위 : 빈도수(%)

	유	무	계
집 안 문턱	25(53.8)	24(46.2)	52(100.0)
욕조	42(75.0)	14(25.0)	56(100.0)
욕조 주변 손잡이나 보조의자	5(8.8)	52(91.2)	57(100.0)
현관, 복도, 계단의 단차	31(55.4)	25(44.6)	56(100.0)
비상벨	2(3.5)	55(96.5)	57(100.0)
바닥 미끄러움	1(1.7)	56(98.3)	57(100.0)

<표 7> 주거내 시설 중요도'

		빈도수	백분율
부엌	싱크대 높이	11	19.0
	수납 공간	7	12.1
	수전 조작	14	24.1
욕실	변기 주변 손잡이	17	29.3
	욕조 필요성	9	15.5
	바닥의 미끄러움	20	34.5
	세면대 높이	9	15.5
	비데	13	22.4
	난방조절	20	34.5
현관	단차	15	24.9
	바닥 미끄러움	13	22.4
	문턱 제거	21	36.2
계단	계단 폭	5	8.6
	계단 높이	13	22.4
	계단 미끄러움	8	13.8
	난간 편리성	6	10.3
기타	비상벨 여부	31	53.4
	창문 개폐 편리	29	50.0
	문, 옷장 손잡이	11	19.0
	계	58	100.0

' : 중복응답

#### 4. 결론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급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거주환경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주환경의 물리적 조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는 거동이 가능한 노인들은 비상벨, 창문 개폐의 편리, 문턱 제거, 바닥재료의 미끄러움, 변기 주변 손잡이, 수전 조작의 용이함, 비데, 계단 높이를 중요한 조건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거주환경의 불편하거나 위험한 곳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불편하거나 위험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주거선택시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하는 것과 관련성이 적었다. 따라서 노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인간다운 여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거주환경에 대한 계도와 홍보 및 경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1. 2000 인구주택 총조사 최종집계결과(여성·아동,고령자,1인가구부문). 2002.7
2. 시도별 장애인구추계결과 2002.5. 통계청.
3. 노인을 위한 일본 주거환경의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유니버설 디자인 특성에 관하여. 황영이. 연세대 생활환경대학원 1999 석사
4.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의 개선 방향. 허영숙. 부산대 대학원 2002 석사